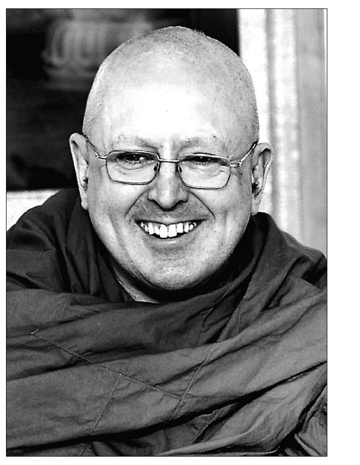
"생각 사라지면 행복이 찾아 옵니다"

명상지도자 아잔 브람과 함께하는 '세계명상힐링캠프'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 아잔 브라흐마 스님(사진 · 이하, 아잔 브람)이 지난해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다. 5월 22일~25일 설악산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리는 세계명상힐링캠프 '사흘간의 집중수행'을 위해 방한하는 스님은 '행복의 길' 안내자로 대중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줄 예정이다.

"수행의 참된 목적은 모든 것 놓아버리는 것"

참불선원(선원장 각산)과 BBS불교방송 공동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명상수행의 중요성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예정이다. 일정은 첫날인 5월 22일 오후 3시 입소 저녁 입재법문을 시작으로 다음날인 23일부터 25일까지 사부대중 500명이 한자리에 모여 아잔 브람의 명상 요약본 〈멈춤의 여행〉을 교재로 집중수행에 들어간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물리학도로 독실한 기독교신자였던 아잔 브람은 오스트레일리아 보디냐나 수도원을 세워 명상을 지도하고 〈성난 물소 놓아주기〉, 〈술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등의 저서를 내놓기도 했다.

아잔 브람이 지도하는 세계명상힐링캠프는 초기경전의 원전을 근거로 선정과 지혜의 통찰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초기불교의 핵심을 전해줄 예정이다. 수행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마음관찰– 호흡관찰–호흡의 전체보기–감미로운 호흡–빛니미따의 체험–선정(禪定)– 지혜–열반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중에서 수행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마음관찰과 호흡관찰은 일상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행사를 주최하는 참불선원의 선원장 각산 스님은 "수행의 첫 번째 단계인 '마음관찰'은 알아차림의 확립으로 위빠사나의 기본이다. 또한 선정과 지혜를 성취하는 사마타 멈춤과 평온, 위빠사나 지혜의 기초수행이다. 이는 일상생활의 매 순간을 알아차리는 객관화 훈련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 아잔 브라흐마 스님이 5월 22일~25일 설악산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리는 세계명상힐링캠프 '사흘간의 집중수행' 지도를 위해 방한한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장면.

마음관찰의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는 현재에 일어나는 생각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다만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아는 단계를 말한다.

각산 스님은 "명상 수행은 마음의 평안,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강화, 업무 능력 향상을 가져온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더욱이 우울증과 공황 장애와 같은 심리적 질병 치료 효과도 빼놓을 수 없는 수행의 이익"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숲속의 수행자 효암 스님, 원담 스님 그리고 초기불교의 대가 미산 스님, 힐링멘토 마가 스님, 도심 속의 위빠사나 스승 김재성 교수의 자문과 준비로 진행된다.

아잔 브람은 "지금 당신이 그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에 이미 다른 많은 사람이 직면해 극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런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곧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는 약들의 사용법을 잘 기억해 둬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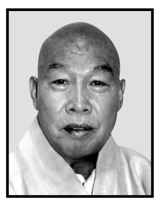
또한 스님은 수행의 참된 목적은 '잃는 것'이라고 말한다. "수행의 참된 목적은 당신이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근사한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제대로 명상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잃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집착을 잃어버린다.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그들은 진정 최고의 루저들이다."

500여 대중 행복의 길 안내 5월 22일~25일 만해마을서

아잔 브람이 오랜 명상으로 터득한 '생각을 사라지게 하는' 마음훈련법은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로 대중들을 안내해줄 것이다. 1577–3696

정혜숙 기자

미주 포교 30년 경암 스님 입적



미국 워싱턴 보림사 주지 해봉 경암 스님〈사진〉이 5월 3일 입적했다. 세수 70세.

암투병 중이었던 경암 스님은 5월 3일 장시간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입적했으며 "맑고 향기롭게 살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1942년 제주에서 출생한 경암스님은 마곡사에서 출가해 지난 1984년 도미, 워싱턴 보림사를 창건했으며 대원불교대학 미주분교장, 미주불교신문 발행인, 워싱턴 보림사주지, 태화산 아란야사 주지 등을 맡으며 미국내 한국불교 포교에 앞장서왔다.

경암 스님은 동양화가이자 시인으로서 활발한 활동도 펼쳤다. 지난 2012년 제9회 국제선서화전을 통해 달마도를 비롯 거북 용 코끼리 등 민속화까지 다채로운 작품세계를 선보였다. 그 해 11월 서울 국회의사당과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선화전을 열었고 2013년 3월과 4월에는 부산과 제주에서, 5월에는 캐나다, 7월에는 일본 오사카 8월에 미국서 순회전을 열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해인사 승가대학장 원철 스님 임명

신임 해인사 승가대학장에 원철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해인사승가대학 운영위원회는 1일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원철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을 임명했다.

원철 스님은 법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7년 해인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승가대와 은해사승가대학원을 졸업한 후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 · 박사를 마쳤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해인사 승가대학 교수, 불교문화대학 선학과 강사, 월간 〈해인〉 편집장, 포교원 신도국장, 총무원 기획국장, 총무원 재정국장,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4대강 생태강 될 때까지 순례"

자전거로 참회순례하는 부산 현정사 주지 보승 스님

"최근 4대강 유역에 자전거 길이 잘돼있다고 하여 가보았습니다. 길은 잘 나있는데 반해 물에선 썩은 내가 나더군요. 우리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 뭇 생명들을 죽였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참회순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4대강에 생태환경이 조성하자는 분위기가 이뤄질때까지 자전서 순례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로 4대강 참회순례를 하고 있는 한 스님이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부산 현정사 주지 보승 스님. 스님은 4월 15일부터 3일 동안 인천 아라뱃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순례를 한데 이어 5월 9일부터 하안거 전인 14일까지는 북한강을 거쳐,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에서 자전거 순례를 진행했다.

"평소 사찰에서만 막연히 알고 있었던 문제를 직접 보니 심각하더군요."

스님이 자전거로 순례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도보로 하는 순례가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였다. 스님은 "자전거로 하다보니 인천에서 5명의 불자들, 섬진강에서는 8명의 불자들이 자연스럽게 동행했다"며 "운동과 순례를 함께 하며 일반인들도 직접 체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부산 삼광사 봉축 전야 점등대법회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왕생극락을 기원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알리는 '봉축 전야 점등대법회'를 5월 5일 3만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효원정사, 천주교 글라넷 선교 수도회 원장 주낙길 수사, 김대선 원불교 평양교구장 등 90여명의 내빈들은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헌화와 부처님의 탄생을 알리는 관불의식을 진행했다. 또한, 희생자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촛불 점화가 이어져 엄숙하면서도 경건한 전야제가 펼쳐졌다.

주지 무원 스님은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새터민 30여명에게 쌀 6kg씩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전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조계사 보리수 새싹학교 동자승 환계식

서울 조계사는 5월 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동자승 단기출가 프로그램 '보리수 새싹학교'의 환계식을 진행했다.

동자승 단기출가 프로그램 '보리수 새싹학교'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부터 동국대학교 불교아동연구소와 함께하고 있다.

지난 4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가족과 떨어져 절에서 생활한 동자승들은 그동안 훌쩍 성장해 의젓하고 얌전한 자세로 환계식에 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바다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염불선수행종단
(사)한국불교 염불선종
총무원장 영운
■ 총무원 : 어림산 복원사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내태리 58
TEL 054)745-3646
FAX 054)742-3646

'큰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중·고등학교
능인학원 상 아 유 치 원
이 사 장 자 현
능인중학교장 아 용
능인고학교장 조상승
상아유치원장 정인애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지산동 800)
TEL 053)764-0807
FAX 053)763-1807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6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5월 중
◆ 개강일시 : 2014년 5월 중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5월 26일(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 東 佛 教 儀 式 教 育 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